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063-220-2400 ~ 2410
전북매일: 063-859-2400 ~ 241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음 11월 18일) 제19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변산 양잠, 국가중요농업유산 선정

(유유동)

작년 12월 심의위 거쳐 전국에서 8번째로 지정
대동지지에도 기록돼
독특한 잠실 보전 높이 평가

전북도는 3일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 전통양잠농업을 전국에서 8번째로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2016년 8월 농식품부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신청했으나 자원미비로 미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3년/15억)에 공모 선정돼 지원 발굴 및 전통잠실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및 부안군이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는 등, 2017년 8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재신청, 최종적으로 12월 15일 농업유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됐다.

조선시대 권잠정책으로 부안 유유동 양잠농업은 1861년 대동지지에서 부안현의 토산품이 뽕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번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양잠농업이 유지 보존되고 있는 역사적 기록과, 또한 누에생육에 가장 중요한 온도, 통풍관리 등이 타지역과 다른 유유동의 독특한 전통잠실을 마을 자체적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한해도 잘해봅시다"

3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8년 무술년 시무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신년사를 갖고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는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고유의 농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추진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농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를 2002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세계중요농업유산은 17개국 38개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제주 발달 농업시스템과 청산도 구들장논에 이어 2017년 하동 전통차 농업 등 3개가 등재되어 있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은 "앞으로도 후세에 물려줄 유산으로 농업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농촌관광 및 농업6차산업과 연계시켜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발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남북채널 23개월 만에 복원... 北 먼저 연락

남북 연락관 통성명... 20분가량 통화

1차 통화 기술적 점검만... 2차 접촉 가능성

남북 간 직통 연락채널이 3일 복원됐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12일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차단한 지 23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께 북측이 먼저 '관문점 채널'인 연락사무소 회선을 통해 연락을 했으며, 통신선 점검 등 상호 접촉

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통화는 20분가량 진행됐다. 통화는 남북 연락관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북측 연락관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통성명을 했다.

양측은 1차 통화에서 관문점 채널 통신선의 이상 유무만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한 북측이 1차 통화

종료시 금일 추후 협의에 대한 상부 지시가 남았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일과 종료시까지 북측의 회선을 대기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차 접촉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한의 연락채널 복원은 김정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TV를 통

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 연계하도록 3일 15시(평양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30분)부터 북남사이 관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연락채널로는 관문점채널과 동·서해군통신선이 있다. 관문점 채널은 모두 33회선이 깔려있다. 여기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회선, 회담지원용 회선, 해사 당국 간 회선, 항공 관제용 회선, 개성공단공동위 사무처 회선 등이 포함된다. 군통신선은 지난 2002~2008년께 서해지구와 동해 지구에 각 설치돼 운용됐다.

/뉴시스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 격 조 건
경력기자 0명 신입기자 0명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저소득층 주거안정 돕는다

전주시, 장기임대주택 등 입주 시 2000만원 이내 지원

전주시가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대출로 빌려주기로 했다.

시는 올해 대비 2억6000만원을 포함 총 6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107가구로,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예비입주자로 확정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지원 대상 가구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총 938가구에 4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

임채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063-281-2445) 또는 천년전주 콜센터(063-222-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규남 기자

매일 INDEX

2면 - 도, 미생물산업 집중 육성

4면 - 고준희양친부 혐의 적용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새롭게 변신한 마이산북부로 GoGo이성~

